

Overweight

전기전자 (Overweight)

MLCC Tracker #2 품질, 품질, 품질

MLCC 유통 데이터, 대만 월별 매출, 수출입 데이터, 시장조사기관 코멘트를 추적하는 월간 트랙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이번 달에는 리드타임 확장과 가격 인상의 확산에 더해, 유통 채널에서 관찰되기 시작한 고용량 MLCC 품질을 점검합니다.

내년 1월에 받을 수 있는 품목도...

① MLCC 리드타임 확장은 8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TTI 기준, 범용에서는 0201의 납기가 7월말 18.3주까지 급등한 뒤 17.5주로 안정을 찾았으나, 연초 14주 대비 여전히 3주 이상 길어져 있다[그림1]. 8월 들어 0805와 1206의 납기가 각각 16.2주, 16.4주로 뒤늦게 늘어나며, 소형에서 시작된 납기 압력이 중대형 사이즈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 고용량은 전 사이즈에서 추가 확장됐다. 8월 현재 고용량 납기는 평균 21주 수준으로 연초 16주 대비 5주 길어졌고, 0805 고용량이 21주로 가장 길다[그림2]. 고전압에서는 1206의 납기가 17.2주에서 19.1주로 한 주 만에 급격히 길어진 점이 눈에 띈다[그림3]

② 품질도 관찰되기 시작했다. 당사가 추적하는 Digi-Key 표본 기준, 8월 중순 기준 서버 및 고성능 IT 전원부용 47uF/6.3V/0805는 삼성전기, Murata, Yageo 3사 모두 유통 재고가 품질 전환됐다[표1]. 재입고 예정 시점은 각각 26년 11월, 26년 9월, 26년 12월로 표시되고, Murata 100uF 표본은 27년 1월이다. 예정 수량도 2,000~4,000개 수준에 그쳐, 유통 채널 관점에서의 실질 대기 기간은 수개월 단위로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가격 인상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Future Electronics 기준, 6월까지 고용량에 국한했던 삼성전기의 인상이 7월부터 전 스펙으로 확대돼 8월에도 이어졌고, Yageo도 7월, 8월 전 스펙 인상 전환했다[표2]. 실제로, 삼성전기는 8월 1일부로 중국 판매법인향 출하분에 대해 30% 수준의 가격 인상을 고객 통지한 바 있고, Taiyo Yuden은 5월에 이어 9월 1일부로 추가 인상을 통지하면서 인상 이후에도 공급량과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Murata는 금번 실적발표에서 유통 채널에 대한 가격 인상을 검토중임을 밝혔는데, 현실화될 경우 수동소자 산업에서 가장 유의미한 추가 촉매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표3]

④ 대만 Passive 서브 섹터의 7월 매출은 +48% YoY 성장하며 6월의 +35% YoY 대비 가속됐다[표4]. 주목할 부분은 수주다. Yageo는 6월 말 BB Ratio가 2.2까지 상승했다고 밝혔고, Walsin도 최근 BB Ratio가 기존 1.4에서 1.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선두 업체인 Murata의 BB Ratio가 1.5인 것과 비교하면, 후발 업체의 수주 강도가 선두 업체를 상회하는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선두 업체들이 라인을 서버, 고용량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범용 주문이 후발 업체로 이월되는 스피로버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본, 한국 업체의 소비자용 생산 축소로 발생한 공급 공백을 대만, 중국 업체가 흡수하고 있다는 Trendforce의 코멘트와도 부합한다[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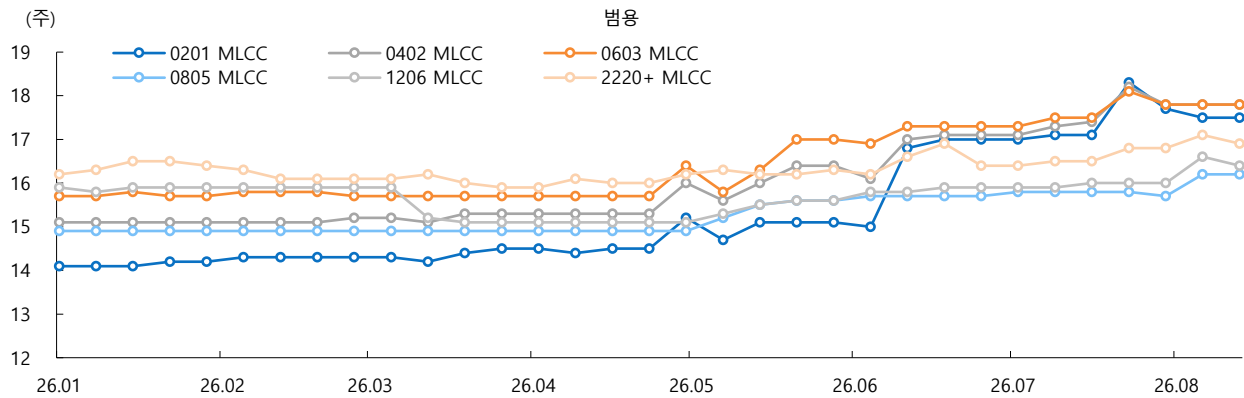
더 강해진 업황과 조정 받은 주가

결론적으로, MLCC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유통 납기, 재고, 가격, 대만 월 매출, 수출 단가, 조사기관 코멘트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그 강도는 전월 대비 오히려 강해졌다. 유통 건적이 출고가를 웃돌고 채널의 선제 확보가 주문을 증폭시키는 조합은 상승 사이클의 전형이다. 아울러 채널 재고가 낮고 공급사가 투기적 주문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면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가파른 주가 조정을 거치며 MLCC 산업의 '27년, '28년 평균 PER는 각각 36배, PEG는 0.5배 수준까지 내려와 부담이 완화됐고[표5], 삼성전기는 12MF PER 기준 그 동안의 멀티플 리레이팅의 상당 부분을 되돌린 수준까지 조정 받았다[그림14].

[전기전자]
고의영
2122-9179
ey.ko@imfn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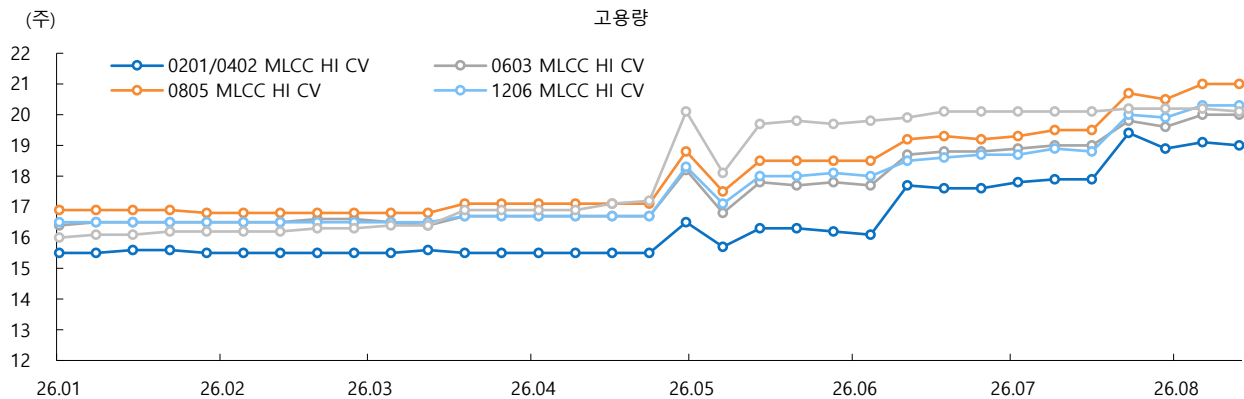
[IT RA]
박정하
2122-9195
jhpark@imfnsec.com

그림1. 범용 MLCC 리드타임 추이: 0201 MLCC의 납기가 크게 길어졌다가 안정세를 찾고 있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길어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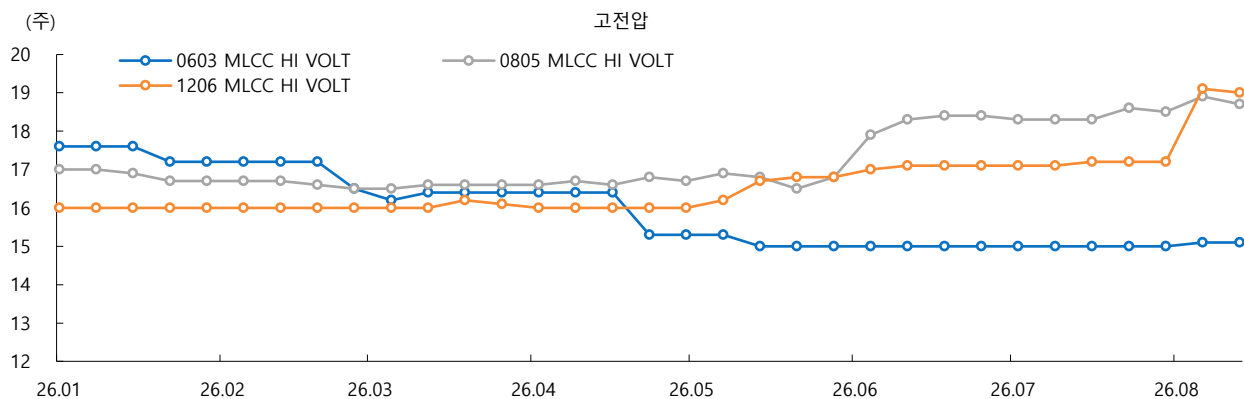
자료: TTI, iM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그림2. 고용량 MLCC 리드타임 추이: 8월 현재 평균적으로 21주 수준 소요. 연초 16주 대비 크게 길어진 상황



자료: TTI, iM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그림3. 고전압 MLCC 리드타임 추이: 8월 들어 1206 사이즈의 리드타임이 급격하기 길어짐



자료: TTI, iM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표1. MLCC 제조사 납기 및 유통상 보유재고: 삼성전기의 납기가 길어진 가운데, 고용량 MLCC에서 품질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제조사	분류	항목		제조사납기 (주)		유통상 보유재고 (개)	
		스펙	주요 응용처	7/13	8/13	7/13	8/13
삼성전기	범용	10UF 6.3V X5R 0402	스마트폰·PC	29	49	1,285,602	280,816
Murata	범용	10UF 6.3V X5R 0402	스마트폰·PC	17	17	1,234	249,579
Yageo	범용	10UF 6.3V X5R 0402	스마트폰·PC	28	28	170,930	266,235
삼성전기	범용	22UF 6.3V X5R 0603	PC·일반 전원부	29	49	539,571	245,884
Murata	범용	22UF 6.3V X5R 0603	PC·일반 전원부	17	17	415,139	197,393
Yageo	범용	22UF 6.3V X5R 0603	PC·일반 전원부	28	28	148,987	333,199
삼성전기	고용량	47UF 6.3V X5R 0805	서버·고성능 IT	31	39	87,710	품질
Murata	고용량	47UF 6.3V X5R 0805	서버·고성능 IT	17	17	104,882	품질
Yageo	고용량	47UF 6.3V X5R 0805	서버·고성능 IT	24	24	196	품질
삼성전기	고용량	100UF 6.3V X5R 1206	서버·고성능 IT	31	39	329,436	323,522
Murata	고용량	100UF 6.3V X5R 1206	서버·고성능 IT	17	17	1,542	품질
Yageo	고용량	100UF 6.3V X5R 1206	서버·고성능 IT	24	24	80,725	48,449
삼성전기	전장	0.1UF 50V X7R 0603	전장 범용	31	39	492,086	174,653
Murata	전장	0.1UF 50V X7R 0603	전장 범용	21	21	7,003,190	6,844,413
Taiyo Yuden	전장	0.1UF 50V X7R 0603	전장 범용	19	14	10,886	1,266
삼성전기	전장	1UF 50V X7R 0805	전장 중용량	31	39	10,286	770
Murata	전장	1UF 50V X7R 0805	전장 중용량	21	21	160,923	446,521
Taiyo Yuden	전장	1UF 50V X7R 0805	전장 중용량	12	23	1,069,837	831,727
삼성전기	산업	0.1UF 250V X7R 1206	고전압 전원부	31	39	1,039,963	1,015,409
Murata	산업	0.1UF 250V X7R 1206	고전압 전원부	23	23	63,913	97,384
Yageo	산업	0.1UF 250V X7R 1206	고전압 전원부	20	20	49,483	21,698

자료: Digikey, iM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표2. MLCC 업체별 MLCC 리드타임 및 가격 동향: Future Electronics에서도 8월 리드타임 추가 확장, 삼성전기와 Yageo의 가격 인상 관찰

업체	스펙 구분	리드타임 동향					가격 동향				
		4월	5월	6월	7월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Murata	<1uF	▲	=	▲	▲	▲	=	=	=	=	=
Murata	>1uF	▲	=	▲	▲	▲	=	=	=	=	=
Murata	Auto	▲	=	▲	▲	▲	=	=	=	=	=
삼성전기	<1uF	▲	=	▲	▲	▲	=	=	=	▲	▲
삼성전기	>1uF	▲	=	▲	▲	▲	▲	=	▲	▲	▲
삼성전기	Auto	▲	=	▲	▲	▲	▲	=	=	▲	▲
Taiyo Yuden	<1uF	▲	=	▲	▲	▲	▲	▲	▲	▲	=
Taiyo Yuden	>1uF	▲	=	▲	▲	▲	▲	▲	▲	▲	=
Taiyo Yuden	Auto	▲	=	▲	▲	▲	▲	▲	▲	▲	=
TDK	<1uF	▲	▲	▲	▲	▲	▲	▲	▲	=	=
TDK	>1uF	▲	▲	▲	▲	▲	▲	▲	▲	=	=
TDK	Auto	▲	▲	▲	▲	▲	▲	▲	▲	=	=
Yageo	<1uF	▲	=	▲	▲	▲	=	=	=	▲	▲
Yageo	>1uF	▲	=	▲	▲	▲	=	=	=	▲	▲
Yageo	Auto	▲	=	▲	▲	▲	=	=	=	▲	▲

자료: Future Electronics, iM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표3. 연초 이후 주요 수동소자 업체들의 판가 인상 결정. 이제는 Murata의 MLCC 가격 인상이 가장 중요한 촉매

시행일	업체	대상 제품	인상폭	적용 범위·배경
2026.02	Yageo	일부 칩저항	10~20%	은·루테튬·팔라듐 등 귀금속 가격 상승 반영. 특정 R-Chip 제품군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통지
2026.04	Yageo·KEMET	KO-CAP 폴리머 탄탈 커패시터	20~30%	AI 서버 수요와 인력·재료·설비 비용 상승. 최근 9개월 동안 세 번째 탄탈 커패시터 인상
2026.04	Murata	칩 페라이트 비드, 파워 인덕터, RF 인덕터, 공통모드 초크	n/a	은 가격 급등으로 자체 원가절감만으로 비용 흡수 어렵다고 설명
2026.04	Yageo	일부 소비자용 및 자동차용 MLCC	n/a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기존 가격·원가 구조가 불균형해진 규격을 선별해 가격 조정
2026.05	Taiyo Yuden	MLCC, 인덕터, 페라이트 비드, 세라믹 RF, FBAR·SAW, 알루미늄 커패시터 등	소비자용 6~13% 서버용 10~30%	금·은 등 원재료와 부품 가격 상승. 대만 언론은 전체 품목의 인상폭이 대체로 두 자릿수라고 보도
2026.06	삼성전기	MLCC	10~20%	AI 서버·전장용 고용량 MLCC 수급 타이트닝을 반영해 가격 조정
2026.06	Yageo·KEMET	일부 탄탈 커패시터	n/a	ASIC 서버용 탄탈 커패시터 공급 부족. 신규 가격표를 6월 1일부터 적용
2026.07	Panasonic	SP-Cap 고분자 알루미늄 커패시터	5~30%	은·동 등 원재료, 제조비와 설비투자비 상승. AI 서버·GPU 가속기용 고급 커패시터 수요 증가
2026.07	Yageo	MLCC, 탄탈, 알루미늄 전해, 고분자 알루미늄, 필름, 슈퍼커패시터 등 전 솔루션	n/a	최근 수년간 가장 광범위한 조정. 기존 유통상 중심에서 OEM·EMS 직접 고객까지 적용 범위 확대
2026.08	삼성전기	중국 선전 판매법인의 Markup Business Code 적용 MLCC 전 품목	30%	판매 협력사·현지 유통사 출하분에 적용. 구조적 수요 증가와 공급망 부담을 인상 사유로 제시
2026.09	Taiyo Yuden	MLCC	n/a	5월에 이은 추가 인상. 원재료비 상승분을 여전히 흡수하지 못했고, 인상 이후에도 공급량과 납기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통지

자료: CTEE, Digitimes 등 언론사 종합, iM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표4. 대만 서브섹터별 월별 매출 YoY 증감률: MLCC가 포함된 Passive는 7월 +48% YoY 성장하며, 가속화된 성장률을 시현

%YoY	24.7	24.8	24.9	24.10	24.11	24.12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26.4	26.5	26.6	26.7
Foundry	41%	31%	36%	28%	32%	54%	33%	40%	43%	45%	36%	25%	24%	31%	30%	16%	23%	19%	35%	21%	43%	17%	29%	65%	43%
DRAM	12%	9%	3%	-8%	-9%	-11%	-13%	-7%	-5%	-3%	0%	4%	24%	40%	48%	95%	123%	153%	228%	218%	216%	350%	357%	347%	479%
Back-end	2%	1%	1%	1%	2%	8%	6%	11%	14%	17%	11%	18%	13%	14%	20%	22%	24%	27%	35%	29%	29%	30%	37%	38%	46%
LCD	6%	3%	1%	-2%	11%	4%	15%	28%	8%	-1%	-2%	-7%	-5%	-4%	-1%	3%	-2%	9%	11%	-7%	14%	3%	3%	15%	-2%
Motherboard	16%	12%	1%	-3%	4%	25%	1%	28%	16%	19%	23%	15%	0%	-8%	13%	9%	9%	20%	19%	3%	19%	13%	6%	34%	30%
EMS	21%	19%	22%	24%	21%	31%	27%	38%	43%	34%	49%	45%	29%	17%	30%	23%	46%	63%	68%	53%	69%	79%	47%	65%	74%
PCB	15%	13%	4%	-1%	1%	10%	-1%	28%	19%	18%	12%	17%	8%	2%	13%	10%	11%	23%	29%	10%	21%	18%	32%	33%	38%
Passive	19%	12%	9%	12%	6%	8%	11%	29%	19%	16%	6%	17%	5%	11%	18%	14%	25%	30%	22%	11%	18%	20%	35%	35%	48%
LED	20%	15%	4%	2%	3%	7%	-9%	12%	2%	-7%	-10%	-9%	-11%	-14%	-8%	-10%	-3%	0%	9%	-9%	-5%	1%	8%	14%	20%
Fabless	29%	1%	16%	14%	5%	0%	15%	24%	13%	15%	5%	21%	-7%	1%	13%	0%	1%	12%	-4%	-15%	9%	0%	8%	8%	17%
CCL	59%	48%	37%	33%	50%	49%	56%	87%	65%	42%	42%	53%	45%	53%	35%	39%	28%	36%	55%	45%	57%	94%	115%	121%	129%
MCU	4%	2%	19%	28%	54%	45%	54%	148%	43%	45%	24%	12%	14%	15%	3%	3%	0%	-7%	28%	-21%	20%	7%	7%	31%	41%
Total	22%	20%	12%	12%	11%	34%	13%	40%	29%	28%	24%	23%	12%	11%	19%	13%	24%	32%	37%	20%	44%	35%	35%	53%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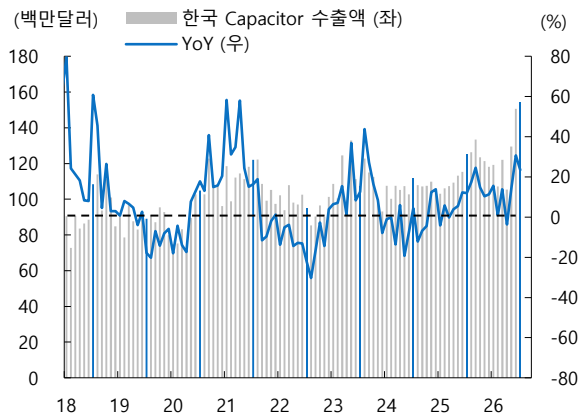
자료: MOPS, iM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표5. Trendforce의 MLCC 수요, 공급, 가격 동향 코멘트 변화

날짜	수요 환경	MLCC 공급 동향	가격동향
2026.01.09	AI 서버 주문은 강한 반면 노트북, 스마트폰, 자동차 수요는 부진. 관세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전자제품의 원가 부담 확대	AI 서버용 고사양 MLCC 라인은 높은 가동률을 유지, 소비자용 제품은 재고 관리 강화	중저가 제품의 가동률을 낮게 유지했으나, 소비자 수요 부진으로 가격 인상 근거는 부족
2026.01.20	CES를 계기로 로봇, 자율주행 등 Embodied AI 수요 확대. 전통 소비 전자제품은 관세와 원가 상승 부담 지속	공급망 자원이 AI 관련 제품으로 이동. 메모리, PCB, 전력, 냉각 부문 병목 확대	
2026.02.09	AI DC 투자와 서버 ODM의 부품 확보는 강한 반면 PC 수요와 소비자용 MLCC 주문은 약세	주요 업체가 고전압, 초소형 등 고수익 AI용 MLCC로 생산능력 재배치. 저전압 범용 제품의 주문 접수 제한	Murata와 삼성전기 등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배분
2026.02.23	소비자 전자제품 수요는 둔화했으나 AI 서버와 자동차용 고사양 MLCC 수요는 견조	공급업체가 소비자용 생산량과 재고를 강하게 통제. 일부 저가 제품에서 인위적 공급 부족 가능성 발생	
2026.03.09	AI 인프라는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PC와 스마트폰은 CPU, 부품 가격 상승으로 수요 약화	AI용 고사양 MLCC 주문은 증가. 전체 생산능력에는 여유가 있어 업체들은 공격적 가격 인상에 신중	일본, 한국 업체는 공급 안정성을 우선하며 고사양 제품에 생산능력을 신중하게 배분
2026.03.18	AI 서버, 가속기 수요는 견조하나 PC, 스마트폰은 메모리와 CPU 부족,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재고 축적이 보수적으로 전환	고사양은 구조적으로 타이트. AI용 생산능력 확대가 중저가 제품의 납기 지연으로 연결	
2026.04.10	AI 수요는 강하나 PC, 스마트폰은 부품 부족과 가격 인상으로 수요 둔화	CSP 자체 칩 플랫폼용 고사양 MLCC 주문이 증가. 소비자용 규격은 상대적으로 공급 여유	일본 업체는 일부 견적을 인상하고, 대만 업체는 저수익 제품 가격 조정 협의. 대형 업체는 전면 인상에 신중
2026.04.20	OEM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우려에 대응해 출하를 앞당겼으나 연간 수요 전망은 상향되지 않음	한국, 일본 업체가 AI 대응을 위해 생산능력 재배치. 고사양 MLCC 수요는 견조	
2026.05.11	중동 분쟁과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자제품 수요 약화. CPU 등 핵심 부품 부족으로 ODM 생산과 출하도 감소한 반면 AI 인프라 주문은 견조	한국, 일본 업체가 생산능력을 AI용 고사양 제품으로 이동하면서 소비자용 MLCC 공급 유연성 축소. 범용 MLCC 부족을 우려한 유통상이 선제적 재고축적	Taiyo Yuden과 삼성전기는 사재기 억제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리점 대상 소비자용 MLCC 가격 인상
2026.05.21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자 전자제품 수요는 약하지만 AI 서버, 데이터센터 투자는 지속	AI용 고사양 MLCC 수요가 증가하며 기술력과 고사양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업체에 유리	
2026.06.08	소비 수요는 약하지만 AI 서버용 MLCC 수요는 강세. CSP 자체 ASIC의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	ECO와 플랫폼 검증 과정에서 특정 규격 주문이 급증. 주요 업체의 BB Ratio 상승과 증설 지연으로 공급 제약 심화	한국, 일본 업체는 장기 고객 가격을 유지한 반면 대만, 중국 업체와 유통상은 일부 규격 가격을 인상
2026.06.18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전자제품 회복은 제한적이나 AI 수요는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잠식	유통상의 재고 축적과 가격 인상에 대응해 노트북, 자동차, Apple 공급망이 선제 주문 확대. 일본, 한국 업체의 BB Ratio 팬데믹 이후 최고	
2026.07.09	AI 서버와 CSP 자체 칩 수요는 강하지만 PC, 스마트폰은 인플레이션과 가격 인상으로 성수기 전망 약화	삼성전기와 Taiyo Yuden이 소비자용 X5R 생산능력을 AI용 규격으로 구조적으로 전환. 채널 재고는 낮고 중고용량 소비자용 제품까지 조기 구매 발생	유통상의 견적이 상승하고 리드타임 압력 확대. 수요는 약하지만 가격은 견조한 '약한 수요, 강한 가격' 국면
2026.07.21	AI 서버와 3분기 신규 AI 플랫폼 양산에 따른 고사양 MLCC 수요 강세. 반면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소비자 전자제품 수요는 부진. 자동차는 일부 완성차 업체의 선제 재고축적과 함께 안정화 조짐	일본·한국 업체가 소비자용 생산능력을 AI용으로 전환하면서 중고용량 범용 MLCC의 공급 공백 확대. 대만·중국 업체로 대체 주문이 유입되고 있으나 생산 능력과 수출 제약으로 공급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 패키지가판 업체는 소형 MLCC의 장기 공급계약 확보에 나섬	n/a
2026.07.31	고금리, 인플레이션과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전자제품 수요는 약세 지속. AI용 고사양 MLCC 주문은 견조	일본·한국 업체의 소비자용 중고용량 MLCC 생산 축소로 공급 공백이 확대되고, 대만·중국 업체가 대체 주문을 흡수. 다만 생산능력과 수출 한계로 공급 대응은 제한적	공급 공백과 유통상 재고축적으로 채널·현물가격이 기존 제조사 출고 견적을 크게 상회. 소비자 수요 부진에도 범용 MLCC 가격 상승세 지속
2026.08.12	지정학적 긴장과 고금리 지속으로 소비자 전자제품 성수기 수요는 부진. 반면 AI 서버·데이터센터 플랫폼 증설이 본격화되며 고용량·고온 MLCC 수요 강세. 자동차·소비자향에서도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재고 비축 확대	핵심 원재료 공급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한국 주요 업체 가동률은 풀가동에 근접. 소비자용에서 AI 용으로 캐파 전환이 이어지고 첨단 공정 증설도 더더 BB Ratio와 수주잔고 상승, 리드타임 장기화 지속	공급업체들이 투기성 주문을 걸러내기 위해 유통망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판가 인상 진행.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은 연말까지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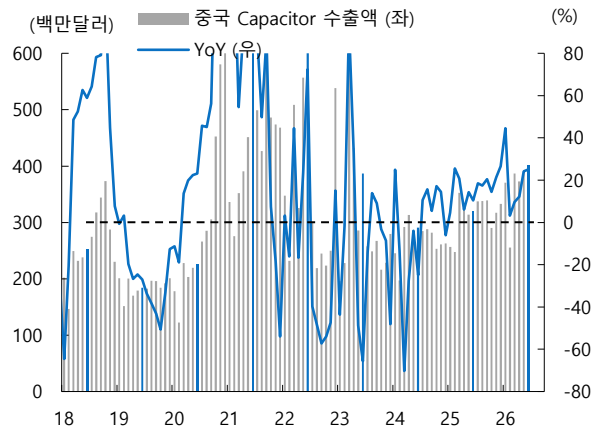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iM증권 리서치본부 정리

그림4. 한국의 Capacitor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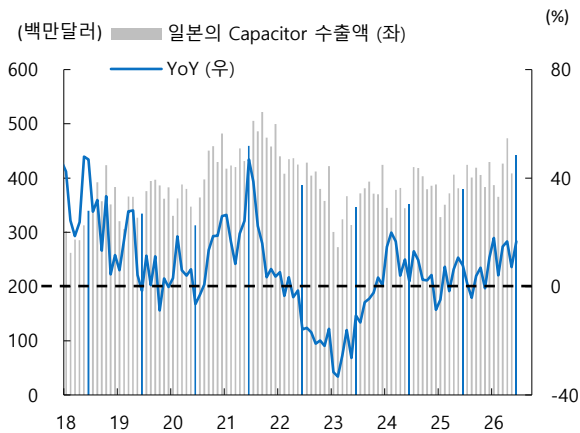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중국의 Capacitor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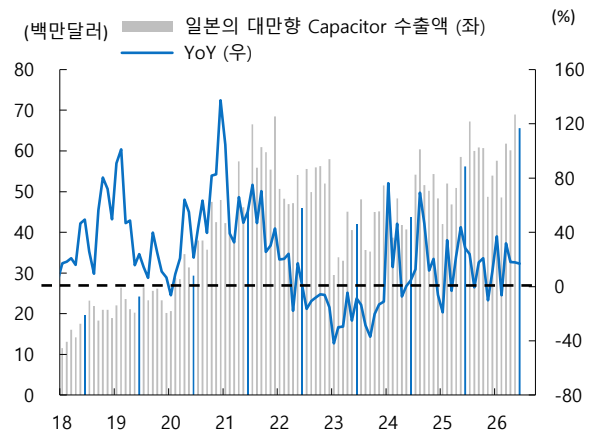
자료: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일본의 Capacitor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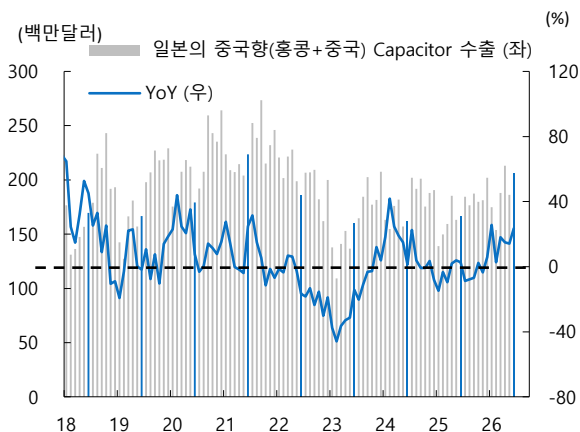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일본의 대만향 Capacitor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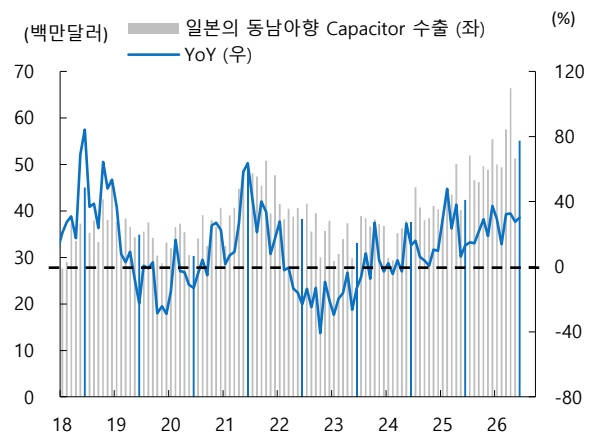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일본의 중국향 Capacitor 수출액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일본의 동남아향 Capacitor 수출액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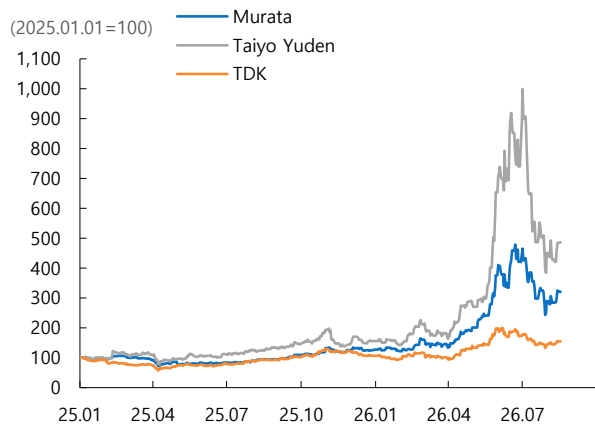
표6. '27년 기준 주요 수동소자 업체들의 평균 PER은 36배, PEG는 0.5배 수준

2026. 08. 17		시가총액 (백만\$)	주가		PER(배)			PBR(배)			ROE(%)			영업이익률			EPS 성장률			PEG		
구분	종목명		1M%	YTD%	26E	27E	28E	26E	27E	28E	26E	27E	28E	26E	27E	28E	26E	27E	28E	26E	27E	28E
MLCC	삼성전기	82,812	22.2	513.3	81.2	34.8	25.2	11.1	8.7	6.7	14.5	28.0	30.1	13.1	22.1	26.4	110.8	133.5	38.0	0.7	0.3	0.7
	삼화콘덴서	758	18.4	252.1	-	-	-	-	-	-	-	-	-	4.4	-	-	-42.8	-	-	#VALUE!	#VALUE!	#VALUE!
	아모텍	155	-13.1	53.2	27.9	9.4	7.2	1.4	1.2	1.0	4.8	11.8	15.5	2.2	3.5	9.4	흑전	-10.5	167.0	#VALUE!	-0.9	0.0
	Murata	100,427	6.6	150.7	43.3	31.0	22.7	5.6	5.2	4.7	8.4	12.4	16.7	15.3	21.1	25.6	53.1	20.1	45.7	0.8	1.5	0.5
	Taiyo Yuden	9,336	-0.6	209.7	49.7	27.9	18.4	4.2	3.8	3.5	4.6	8.1	14.0	6.1	10.2	15.3	247.6	74.0	57.0	0.2	0.4	0.3
	Yageo	39,588	-12.3	165.4	31.4	19.3	12.6	6.3	3.3	2.4	21.4	30.1	32.5	27.2	33.1	37.0	70.3	62.5	53.7	0.4	0.3	0.2
	Feng hua	10,699	34.0	282.9	127.2	79.9	72.5	5.5	5.1	4.8	4.4	6.4	6.6	9.5	12.2	12.4	96.4	59.2	10.3	1.3	1.4	7.1
	CCTC	37,353	28.0	176.9	65.3	49.0	40.4	9.4	8.2	7.1	15.0	17.3	18.8	33.2	33.6	32.9	#N/A	#N/A	#N/A	#N/A	#N/A	#N/A
MLCC 평균			10.4	225.5	60.9	35.9	28.4	6.2	5.1	4.3	10.4	16.3	19.2	13.9	19.4	22.7	89.2	56.4	61.9	0.7	0.5	1.5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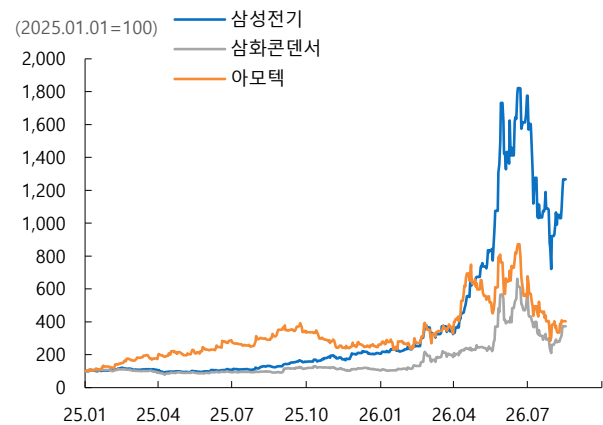
주: 삼성전기는 당사 추정치 기준

그림11. 주요 일본 수동소자 업체들의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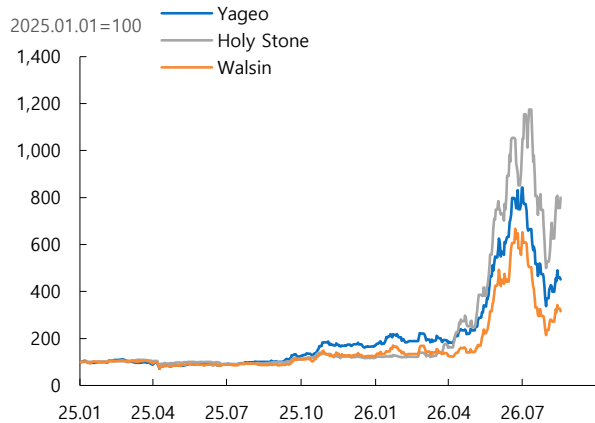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주요 한국 수동소자 업체들의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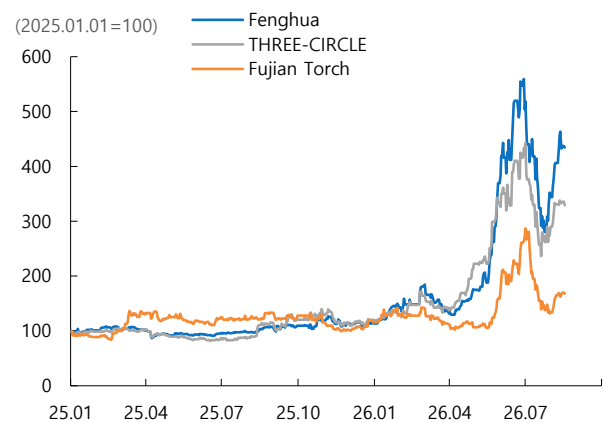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주요 대만 수동소자 업체들의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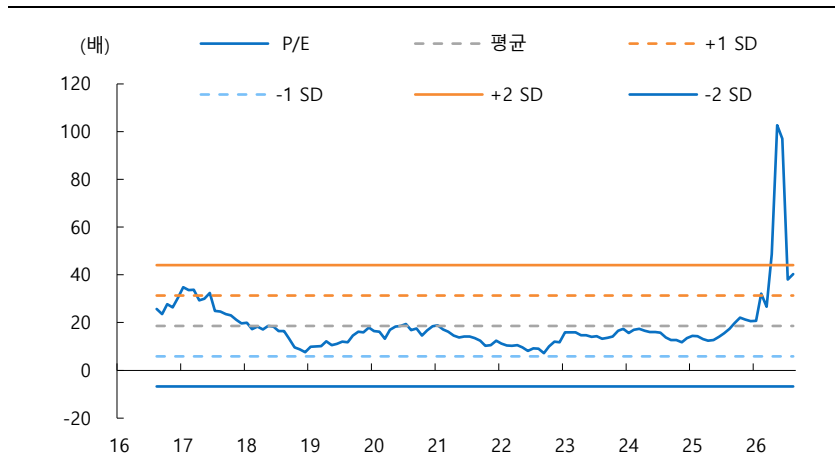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주요 중국 수동소자 업체들의 상대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삼성전기 12MF PER 추이: 리레이팅의 상당 부분을 되돌림



자료: Dataguide,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9.8%	10.2%	-